

사교육비 줄어드는데...광주는 4년 연속 증가

지난해 1인당 23만원...전국 5.4% 감소 '대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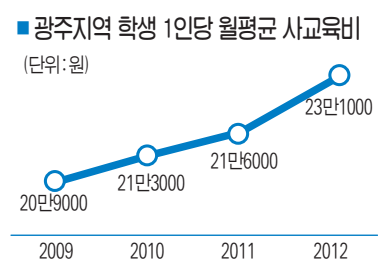
"사교육청 평준화 정책 불안 학부모들 사교육 더 의존"

전국적으로 사교육비가 감소세인 것과 달리 광주는 4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광주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1000원으로 전년(21만1000원)보다 9.5% 증가했다. 전남은 2009년 20만9000원에 비해 10.5%(2만2000원) 상승했다. 특히 중학교의 사교육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통계청에 의뢰해 전국 1065개 초·중·고 학부모 4만4000명과 학생 3만4000명을 대상으로 '2012년 사교육비'를 조사한 결

과다. 광주의 지난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1000원으로 전년(21만6000원)보다 6.9% 증가했다. 전남은 17만2000원으로 2010년(16만7000원)보다 3.0% 늘었지만 전국에서 사교육비가 가장 적게 들었다. 전국 평균은 23만6000원으로 전년(24만원)보다 1.7%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만2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경기(24만9000원), 대구(24만8000원), 대전(24



만3000원, 2011년 21만3000원, 2012년 23만1000원으로 4년 사이에 2만2000원 상승했다.

이같은 상승은 중학교가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지역 중학생의 경우 2009년 22만8000원에서 2010년 23만6000원, 2011년 25만2000원, 지난해 27만3000원으로 4년 사이에 19.7%(4만5000원) 급증했다. 사교육 참여율도 2011년 73.9%에서 지난해 74.3%로 높아졌다.

초등학교도 사교육비 증가에 한몫했다. 초등학교는 10명 중 9명 가량(85.7%)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용은 지난해 25만2000원으로 전년 22만9000원보다 10%(2만3000원) 올랐다.

반면, 고등학교의 지난해 사교육비

는 15만8000원으로 전년(15만9000원)보다 1000원 내려갔다.

사교육비의 증가 원인은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광주지역의 방과후학교 참여율은 지난 2010년 60.3%에서 2011년 56.1%, 지난해 56.5%에 그쳤다. 비용을 내는 방과후학교는 2010년 56.8%에서 2011년 53.4%, 지난해 47.9%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과목별 지출을 보면 영어와 수학 등 주요 과목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광주사교육청의 평준화 정책이 학부모들의 불안을 키우면서 사교육 의존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7분
해질 18시 07분

달돋이 04시 29분
달질 14시 54분

지역	구름량	최고/최저
광주	구름많고한때비	-4/-3°C
목포	구름많고비	-3/-3°C
여수	맑음	-1/0°C
나주	구름많고비	-6/-4°C
완도	구름많고비	-2/-2°C
구례	맑음	-4/-2°C
강진	구름많고비	-4/-3°C
남해	구름많고비	-4/-3°C
장흥	구름많고비	-4/-3°C
순천	맑음	-4/-2°C
영광	구름많고비	-6/-4°C
진도	구름많고비	-2/-2°C
전주	맑음	-6/-5°C
군산	맑음	-6/-5°C
남원	맑음	-8/-6°C
옥산도	구름많고비	-1/-1°C

바다	중랑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체감온도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매우높음	매우높음

◇주간날씨

날짜	8(금)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날씨						
최저/최고	-10/-2	-6/1	-4/3	-4/4	-3/4	-2/5

"햇볕 많이 쬐면 류머티즘 관절염 발병확률 낮춘다"

하버드대 연구진 조사



여고졸업생들 담임선생님과 찰칵 6일 오전 광주시 북구 일곡동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열린 졸업식. 이 학교 3학년 3반 졸업생들이 담임선생님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햇볕을 많이 쬐면 류머티즘 관절염의 발병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이 20만 명의 여성을 두 집단으로 나눠 최장 37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화창하고 날씨가 좋은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에게서 관절염이 덜 나타났다고 영국 BBC 방송이 지난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76년부터 관찰한 첫 번째 집단의 분석 결과에서는, 날씨가 좋은 지역에 살면서 자외선을 많이 쬐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관절염에 걸린 확률이 21%나 낮았다.

반면에 1989년부터 조사한 두 번째 집단에서는 류머티즘 관절염 발병과 자외선 노출 정도에는 아무런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가 자외선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류머티즘 관절염의 위험성을 낮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郡지역도 24시간 응급실 운영

복지부, 기본계획 마련...닥터헬기 이용 섬·산간지역 이송체계 강화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의료서비스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군 지역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닥터헬기를 이용해 섬·산간지역 이송체계가 강화된다. 또 전문성에 따라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이원화하고 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중심의 믿을 수 있는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3~2017년 응급의료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30분 안에 응급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군마다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지역당 운영지원 예산을 2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정부는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 숨지는 일이 없도록 지역별 응급수술 순환 당직제를 운영키로 했다.

또 초기치료를 도맡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중증응급환자가 끝단계(치료 가능 적정시간) 안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를 이원화해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계획이다. 권역심뇌혈관센터 11곳을 거점으로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계속 운영하고 닥터헬기로 도서·산간지역 환자를 이송한다.

밤에 응급실 말고는 진료받을 곳이 없어 긴 대기시간과 비싼 비용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들의 불만을 덜기 위해, 야간·공휴일 진료 수가를 인상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으로 야간에 운영하는 진료기관을 안내한다. /채희정기자 chae@연합뉴스

오늘부터 또 한파...광주·전남 영하권

7일 아침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력한 한파가 찾아온다. 특히 8일에는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7도로 예상되는 등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추울 전망이다. 추위는 설 연휴 기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북서쪽에서 확장된 차가운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7일 아침부터 광주·전남지역을 포함, 전국 대부분의 지역의 수은주가 영하 2도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아침 예상 최저기온은 광주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2도로 점차 낮아 지겠다.

8일 오전에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구름대가 유입되면서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오는 곳이 있겠으며, 12일은 기압골 영향으로 남해안에 비 또는 눈이 오겠다. 8일에는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겠고 설 연휴가 시작되는 9일 영하 6도, 10일 영하 4도를 기록하며 추위가 맹위를 떨치겠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 인상 철회

한도액 초과편 운영 정지·반환 명령

정부가 어린이집의 부담한 보육료 인상을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53차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 보육지원 대상을 0~5세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며 "이런 혜택이 실제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정부는 어린이집의 보육료가 한도액을 넘길 경우 3개월 안팎으로 운영을 정지하고 초과분에는 반환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어린이집이 어린이집은 이런 비용을 시·도지사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안에서 부모들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연합뉴스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파워리버캡!

!그린알로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그린파워리버캡 출시!

그린파워리버캡은 100% 천연식물 밀크씨슬에서 추출한 실리마린 이 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어 간 건강지표를 나타내는 효소인 GOT, GPT 수치개선에 도움을 주며, 천연원료 비타민, 미네랄(11종)이 에너지 대사 활성을 도와 과중한 업무 및 스트레스로 지친 일상에 활력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헛개나무열매 추출물, 민들레 추출물, 표고버섯균사체 추출물, 운지버섯다실체 추출물, 울금 추출물, 효모추출물(글루타치온) 등 부원료들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1%유지도 함유하지 않은 정제형 복합기능성 제품입니다.

섭취대상자

- 과도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생활로 간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
- 잦은 회식과 야근에 늘 지쳐있으신 분!
- 업무량이 많아 피로하신 분!
- 쉽게 피로를 느끼시는 분!
- 활력 있는 생활을 원하시는 분!

그린알로에 제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린알로에
FOR YOUR HEALTH

고객상담실 080-234-6588